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¹⁾에 대하여

김동수*

I.

본서는 사복음서의 본문비평에 관한 연구서이다. 신약성서의 본문비평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이 본문비평에 대해서 안내하는 개론서들이라면, 본서는 본문비평의 근본적인 문제 즉 본문비평이 무엇이고, 그 과제와 목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책이다. 여타 본문비평에 대한 책들이 본문비평의 정의와 과제는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비평의 실제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본서는 본문비평의 목적과 과제에 대한 문제들이 본문비평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러한 질문들 자체에 대해서 천착한 것이다. 사실, 본문비평의 과제에 대한 질문은 본문비평을 실제로 실행하기에 앞서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로서 본서가 제기한 질문은 적절한 것이다.

이제까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문비평의 목적과 과제에 관한 표준적인 정의는 이런 것이다. 먼저, 본문비평은 사본들의 증거를 통해서 저자가 기록한 원문을 가능한 한 복원해 내는 것이다. 부차적으로 본문비평은 여러 사본들이 원문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를 가능한 한 설명해 보려는 것이다.²⁾ 이러한 목적을 국내 학자 중 신약본문비평의 전문가인 장동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신약성서 사본 연구(본문비평)의 일차적 목적은 현존하는 사본들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가능한 한 가장 근접하게 원문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차적인 목적은 그 본문의 전달 과정에 대

* 신약학, 평택대학교.

1) David C. Parker,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 Cf. Gordon D. Fee, “Textual Criticism in the New Testament,” Eldon J. Epp and Gordon D. Fee(eds.) *Studies in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Grand Rapids, MI: Eerdmans, 1993) 3; Eldon J. Epp, “Textual Criticism(NT),” *The Anchor Bible Dictionary* 6, 412.

한 역사를 추적해 보는 것이다.”³⁾ 본문비평의 목적이 이와 같기에 학자들은 구체적인 구절에서 어떤 사본이 원문에 더 가까울까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과 원리를 만들어 냈다. 요약해서 말하면, 본문비평의 원리에는 사본들의 연대와 질과 지리적인 분포상황과 본문유형 등을 검토하는 외적인 증거와 사본 내에서 이문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원리를 검토하는 내적 증거가 있다. 본문구축 작업은 결국 이 원리 중에서 어느 한 쪽에 더 무게를 두거나 아니면, 양자에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에서 결정된다.

본서는 위와 같은 본문비평의 목적과 방법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본문비평의 일차적 목적이 원문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명제에 반대하여 본서의 저자 파커는 본문비평을 “내 앞에 놓인 단어들을 통해서 타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려는 학문이다.”(본서, 1) 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본문비평은 사본들을 비교해서 본래 저자의 원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본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각 사본이 형성된 정황과 그 사본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인정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한다. 파커에 의하면 원문을 구축하는 것이 본문비평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떤 문헌은 원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대본을 예로 든다. 셰익스피어는 처음에 희곡 초고를 쓰고 이것을 나중에 인쇄한다. 그런데 그 초고를 가지고 그는 리허설을 하고 배역들의 제의에 따라 초고를 고치고 이것을 또 인쇄한다. 그래서 초고 인쇄물과 이후의 인쇄물은 상당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문은 어떤 것인가? 파커에 의하면 여기서 원문이 어떤 것이냐보다는 한 본문이 어떤 단계를 대표하는 것이냐가 더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다(본서, 4-5). 각 본문은 각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것이고 각 단계별 이문들을 종합해서 셰익스피어가 만들지도 않았던 새로운 제 삼의 희곡을 만드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비평의 과제는 원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본서, 7).

파커는 셰익스피어 희곡의 대본 원리를 복음서의 본문비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음서들도 본래 원본이 존재했다기보다는 처음 수세기 동안은 기록된 전승과 구전 전승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기록된 전승이 구전 전승에 우선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구전 전승에 의해 기록된 전승이 계속해서 가감되어 갔고 특히 공관복음서는 상

3) 김경희 외, 『신약성서개론: 한국인을 위한 최신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53.

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갔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후에 가감된 전승이 예수의 본래 말씀에 가까울 수도 있으며 처음에 형성된 여러 사본들 각각은 각 지역의 전승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II.

본서의 논지는 사복음서 본문은 필사본만으로 현존하고 그 필사본은 초기에 매우 자유롭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즉 복음서 본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본문이었고 각 필사본은 각각의 전승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파커는 자신의 논지를 확증하는 증거로서 첫째, 복음서에 관한 전승의 물리적 특징과 둘째, 이문 변이의 본질과 정도를 든다. 첫째, 복음서가 고정된 본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발전하는 살아 있는 본문이 된 것은 복음서 본문이 파피루스 코텍스에 쓰여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약이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되었고, 당시의 희랍 문헌들이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본문에 다른 글의 가감이 어려웠던 데 반해 복음서는 책 형태인 코텍스에 기록되어 여백에 구전 전승과 기록 전승의 가감이 물리적으로 쉬웠다는 것이다. 또한 코텍스는 두루마리에 비해 같은 사건의 본문이 있는 책의 부분을 옆에 놓고 상호 비교해 보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본문간의 상호 영향이 더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복음서 본문이 초기에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파커는 복음서 사본간의 변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든다. 구약의 마소라 텍스트는 사본간의 변이가 매우 적고, 그것은 주로 철자법에 관한 것이다. 그 이유는 본문 형성 초기에 권위 있는 본문으로 확정되었고 마소라 본문이 생성된 이후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약 사본은 변이가 매우 큰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초기 수 세기 동안 본문을 일치시킬 권위가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때 본문이 자유롭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4세기에서야 비로소 여러 지역에서 본문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어 비잔틴 사본, 시리아 페시타 사본, 콕트 보헤리안 사본, 라틴 별게이트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때에도 전체 교회적인 표준 규정은 없었고 4세기 경에 강력한 교회 지도자들의 출현과 더불어 표준적인 본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표준적인 본문은 지도자의 해당 지역에서 자유롭게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자유롭게 발전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서 파커는 베자 사

본을 든다. 잘 알려진 대로 베자 사본은 최고(最古)이며 동시에 최고(最高) 권위를 가진 코덱스 사본들인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등과는 상당한 정도로 다르다. 대부분의 구절에서 베자 사본은 다른 사본들과 다른 길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그 변이가 너무 커서 베자 사본은 다른 판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것이다. 파커는 대부분의 학자들과는 달리 베자 사본을 2세기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하며 베자 사본은 기독교 전승에 대해서 자유로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본서, 202). 즉 복음서 본문이 형성될 때 복음서를 읽고 기록한 사람들은 이미 쓰여진 전승을 정확히 복사해 내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기록된 것을 정확히 복사해 내는 것보다 기록된 전승에 다른 기록된 전승과 구전 전승을 합쳐 새로운 본문을 창조해 냈다는 것이다.

복음서 본문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며 살아 있는 본문으로 발전했다는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파커는 먼저 누가복음 6:1-10의 본문을 바티칸 사본과 베자 사본과 아투스디온 사본(Codex Athousdion)을 비교하여 세 사본의 변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3장). 이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 본문을 통해 누가복음 본문은 마태복음과 조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각 본문은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4장). 또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은 독립적으로 발전된 것이어서 여기서 예수의 본래 말씀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5장).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본문에서는 본래 기록의 권위보다도 전승의 권위를 우위에 두어 본문에 포함시키는 예를 볼 수 있다(6장). 그 밖에 마가복음 끝 본문과 누가복음 마지막 장들은 저자가 본문을 써놓은 이후에도 전통이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다(8-9장).

III.

이제 파커가 본서에서 주장한 논지를 평가할 차례다. 우리는 파커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 성서 복음서가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모차르트 작품처럼 본래 원문이 없고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원문은 존재했지만 전달 과정에서 실수와 해석의 첨가로 변화된 것인가? 우선, 셰익스피어 작품이 초고에서 태어나 시연을 하면서 발전되어 나간 것과는 달리 복음서 본문은 저자가 처음 초고를 작성하고 이것을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다른 버전(version)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하기는 어렵다. 복음서 저자는 스스로 여러 버전을 낸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 구축 과정이 어렵더라도 -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울지라도 - 원문 자체는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비평의 최우선 과제가 원문을 복원해 내는 것임은 자명한 것이 된다. 파커가 주장하는 대로 사복음서 각 저자가 기록한 전승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독자가 아는 구전 전승이 더 예수 말씀에 근접하다고 생각될 때는 본문을 자기 나름대로 가감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역시 복음서 저자가 기록한 원문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 생각에는 본서에서 파커는 본문비평의 주 목적과 부차적 목적을 착각한 것이다. 본문비평의 주 목적은 원문을 재건해 내는 것이지만 부차적 목적은 사본들의 변이를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그것을 설명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파커의 논지가 정당하다면 여러 이문들을 검토하여 제 삼의 표준 되는 원문을 구축하기보다는 각 사본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여러 사본들이 각각의 정당성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신약성서 사본이 인쇄되어 대량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각 지역에 따라 권위 있는 사본이 있어 이렇게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본을 다 대조해 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상이한 여러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파커는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 초기에 사람들이 복음서 본문을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인 것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기 사본들 중에는 상당히 자유롭게 변화해 나간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본의 경향성이지만 전체 사본의 경향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 신약 복음서가 구약 마소라 텍스트에 비해 사본간의 변이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른 고대 철학 텍스트와 비교해 보면, 그 변이는 매우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커가 복음서 사본이 그 형성기에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유동적인 본문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 이면에는 베자 사본의 가치에 대한 그의 평가와 무관치 않다. 파커는 베자 사본이 2세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록 베자 사본이 다른 사본들보다 그 자유의 폭이 넓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초기 교회에서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신념은 심각하게 도전 받아야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베자 사본은 현재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캠브리지 대학 신약학 교수였던 에른스트 밤멜(Ernst Bammel)은 베자 사본의 유용성을 역설한 학자로 알려져 있

다. 필자 자신도 그가 타계하기 얼마 전 그에게서 본문비평 과목을 수강하기도 했고 베자 사본의 가치에 대해서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파커의 주장은 그의 선생이었던 밤펠의 주장 위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자 사본이 5-6세기 경에 기록된 사본이며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산 사본에 비해 후대의 것일 뿐만 아니라 사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이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이다. 파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가 생각하는 베자 사본의 형성과 기록 시기에 대한 더 확고한 증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본서에서 파커의 기본 논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본서는 몇 가지 면에서 가치 있는 저술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본서는 신약학에 있어서 본문비평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시켜준 저술이다. 흔히 본문비평은 전문가들만의 일이고, 또한 인쇄 시대 도래 이후로 복음서 원문은 상당히 확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신약학자가 담당할 과업은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하며 저자의 신학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본서는 기독교 초기에 사본들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를 질문함으로써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 사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복음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둘째, 본서는 본문비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질문, 즉 본문비평의 목적과 과제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이 질문이 자명한 것이 아니라 본문비평 실행에 앞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질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본서는 앞으로 본문비평의 목적과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든 학도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표준 서적의 하나로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Book Review: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by David C. Parker

Dong-Soo Kim

This book concerns the task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particularly regarding the four Gospels. David C. Parker challenges the traditional idea that the primary task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consists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text. There existed, he claims, no such thing as the original texts of the Gospels. During the first three centuries, the texts of the Gospels developed freely and influenced one another. The texts of the Gospels were not fixed but in the making in that period. This conviction leads him to conclude that the task of textual criticism concerning the four Gospels lies in the understanding of each manuscript rather than in correcting the manuscript in order to reconstruct the original text. This article challenges Parker's thesis that the primary task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does not consist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text. I agree with him that one of the purposes of textual criticism is to recognize each manuscript in its own right and to understand how it has been formed. However, this is not the primary but the secondary purpose of textual criticism. He is probably confusing the secondary with the primary task. Although I am not convinced by Parker's thesis, I think that Parker's question is still valid. He leads us to rethink the important theme of the task of textual criticism, which has often been considered axiomatic.